

4 영산강 투어

영산강 수질개선 등 애당초 정부가 4대강사업 목적이라고 제시한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했을까요?

4대강사업 진실을 알리고 기록하기 위한 일정, 강을 복원하고 살리기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4대강사업 진실알기 영산강 투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10일(토)
- 구 간 : 죽산보~담양습지
- 참 가 비 : 15,000원
- 신청/문의 : 062-514-2470

11월 활동보고

- 11/1(화) 영산강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회의
- 11/4(금) 후원의 밤 소위원회 회의
- 11/6(일) 하천지킴이 교육- 저서생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례모임
- 11/11(금) 인화학교 해질 축구 천막농성 및 서명운동 참여
후원의 밤 소위원회 회의
- 11/15(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
- 11/17(목) 집행위원회 회의
- 11/18(금) 기후보호포럼 회의
- 11/19(토) 영산강답사
- 11/20(일) 불한방을 훔쳐줍 무등산 답사
- 11/22(화) 자문위원회 회의
광주호 독높이기 대책회의
- 11/23(수) 그리스쿨 만들기 포럼
- 11/24(목) 에너지절약- 내복입기 캠페인
영산강한마당 참여
영산강 둔치 골프장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11/26(토) 환경연합 전국대표자 회의, 활동가 토론회
사진모임 '디지로그' 정기 출사 덕유산
- 11/27(일) 어린이 자연나들이-우리 간강지킴이 콩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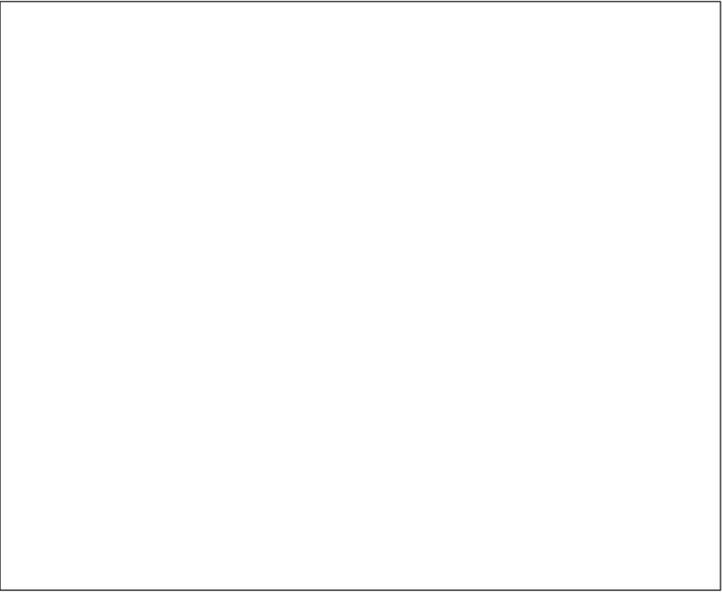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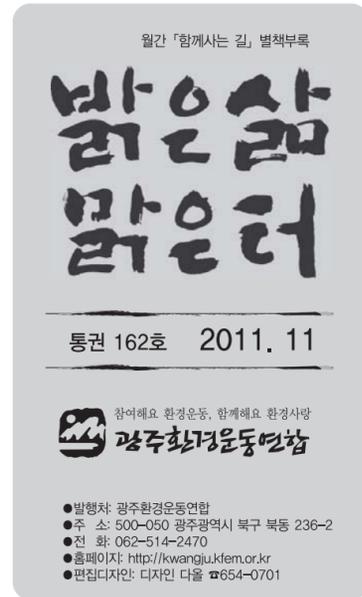
11월 재정보고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 월 금	47,404,875	차기이월금	33,176,865		
회 비	14,145,000	경 상 비	10,161,160		
후 원 금	10,797,852	중점사업	4,924,30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724,220	사업비	회원사업	2,999,900
	교육참가비	520,000		조직 및 특별사업	73,157,046
	특별사업	50,320,000		소 계	76,651,246
	소 계	51,564,220		기 타	24,246
기 타	531,570	지 출	91,266,652		
수 입	77,038,642	지 출 계	124,443,517		
수 입 계	124,443,517				

전월 재정보고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회원동정

- 영광 오경근회원께서 영광굴비를 한아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근우 고문님(전 의장)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장봉조 회원님 둘째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성적 환경운동을 제안합니다

환경운동은 언제나 불편한 얼굴을 보여 왔다. 특히 개발에 중독된 사회적 풍조와의 대결에 몸을 던져야 했고 따라서 환경운동가들은 '투사'로 인식되었다. 때로는 환경운동가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소원해지기도 했다.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다. 환경 문제는 미래 예측을 전제한다. 또한 종합적인 인식을 요한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행정 관료들, 경제 개발인들,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자질과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환경 운동가들은 노상 단편적인 안목을 가진 집단과 맞서는 외로운 '운동가'의 길을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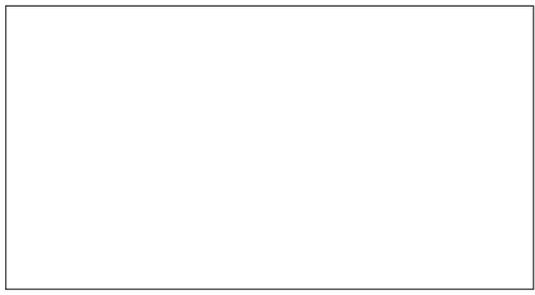
이제 환경운동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젊은 층을 향해 '건강한 미래 환경'의 그림을 그려 보이는 방식이다. 젊은이들에게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인간다운 환경을 약속하는 환경운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식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이며 환경운동의 열매는 젊은 세대의 몫이라는 호소를 해보자. 요즘 젊은 세대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성향을 감안해 환경문제에도 젊은 세대다운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감성적 환경 운동으로 코드를 바꾸는 것이다. 요즘 흔한 콘서트를 빌어다 쓰자. '젊은이를 위한 환경콘서트'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용과 형식을 고안해 환경 이벤트를 전개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의미 있게 자각하는 문화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영화상영, 환경 주제 음악회, 환경을 경각시키는 전람회, 환경을 고발하는 연극 공연, 환경적 아픔을 호소하는 춤 공연, 환경시낭송, 환경을 주제로 한 젊은 발연, 친환경 음식 먹기, 건강한 자연(산, 강, 숲, 거리) 체험, 환경

문제를 자극하는 가장행렬, 등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깨우침을 주는 환경 행사를 전개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마을 단위 환경 진단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예를 들어 '상무지구 환경 평점'을 매겨보는 일이다.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환경 문제에 눈을 뜨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특정 지역이 안고 있는 부정적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데 환경 단체가 협력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을 표방한 많은 환경 단체들을 한데 모아 환경 운동의 큰 힘을 과시하는 기회를 연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 문제는 그저 몇 사람이 떠드는 정도로 느끼는 '힘없는 환경 운동'의 인상을 불식하는 것이다. 잘 하면 시민 모두가 환경운동자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유도하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감성적 환경 운동은 지역민에게 무해한 것으로 느껴져 호감이 가는 환경 운동으로 각인될 수 있다. 광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성진기 | 고문, 前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이슈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만들기 포럼



11월 23일(수) 오후4시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만들기’ 기후보호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자 공간임에도, 현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간처럼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학교와 캠퍼스를 저탄소 녹색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현재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현장 즉,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공간, 지속가능한 교육, 연구, 실천의 공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녹색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에 걸맞는 학교 현장을 어떻게 저탄소 녹색학교와 캠퍼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건축, 에너지, 녹지, 관련NGO, 학부모, 학생(대학생), 시의회가 모여 함께 토론하였다.

이흥주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전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대학 캠퍼스는 에너지다소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기후변화 인지도는 낮은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적용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저탄소형 건축물 보급, 빗물이용, 신재생에너지보급,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 구체적 사례와 예를 들어 그린스쿨, 그린캠퍼스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효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그린스쿨, 그린캠퍼스의 개념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그린스쿨은 탄소를 줄이는 공간이 아니고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인류에 절대적인 목표에 대하여 실천적 교육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Green, Eco, 친환경은 나무를 심거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빗물의 재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조금은 불편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이해하게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황승일 봉주초등학교 교사는 태양과 바람과 지구 숲 학교 조성 사례 발표와 전남대학교 김용주 GPS 환경동아리 활동인 ‘전남대학교 Green Campus 회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정희곤 의원은 그린스쿨과 그린캠퍼스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Green School, Green Building 을 넘어서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과 그린스쿨운동의 균형과 조화, 그린스쿨 운동의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산강변 골프장 추진 논란

전남도와 나주시가 영산강사업으로 조성된 나주 영산동 일대 천변저류지(67만여평)에 27홀 규모(약 45만여평)의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변저류지는 홍수기 홍수량을 분담하고 평상시에는 습지로서 기능하여 하천수질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거대 댐이나 제방으로는 치수에 한계가 있고 반환경적인 구조물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천변저류지이다. 하천변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을 아예 홍수터로 습지로 되돌리는 것이다.

골프장 논란이 된 천변저류지 역시 영산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 공사가 끝나자마자 골프장을 추진하겠다고 지방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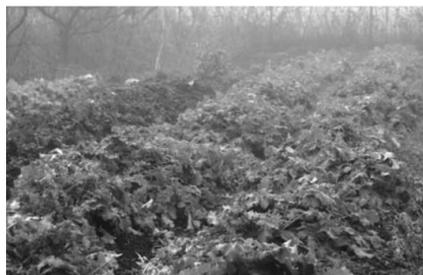
골프장은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 수질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살포할 농약등이 하천에 전방위로 유입돼 안전문제에도 치명적이다. 4대강사업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논을 수용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수질개선 사업이라 주장한 정부가, 향후 하천둔치 유지관리비용에 부담을 가질 지방정부를 부추겨 골프장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하천법상 골프장은 불가하다. 그런데 법까지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살리기와 반대되는 정책을 4대강공사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태중회원의 먹을거리 이야기⑥

서리와 농사 그리고 FTA



▲김장에 쓸 쪽파



▲자연재배 김장용 갓과 무



▲토종 시금치



▲힘있게 올라오는 밀싹

상강(霜降), 입동(立冬)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겨울이 코앞까지 온 듯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군요. 김장용 무, 배추, 갓 등을 심어놓은 밭을 보니 밤사이 된서리로 고랑 사이사이에 난 풀들이 풀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무, 배추, 갓 등은 다 멀쩡하네요.

농사꾼들은 서리를 기준으로 하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추상같다’, ‘된서리 맞았다’, ‘서릿발’ 같은 우리말들이 서리의 무서움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름 곡식들은 서리를 맞으면 맛도 탈하고 씨앗의 힘도 약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바로 ‘서리태’ 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리를 맞은 후에 수확한다 하여 서리태 입니다.)

여름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보리, 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한해의 마지막 작물들을 파종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비로소 한해 농사가 끝이 나고, 삼과 팽이를 잘 씻어서 보관하고 농한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삼과 팽이를 씻고 밖에서의 농사가 끝났다고 해서 한해 농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1년 내내 먹을 김장김치를 담는 것과 간장, 된장 등을 담을 메주를 썬서 달아 메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다 마쳐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어머니들도 두 다리를 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21세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 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서리를 기준으로 한 농사꾼들만의 변할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얼마전에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절차도 없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대책도 없이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한미FTA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농업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그게 어디 농업뿐이었습니까만은). 말 그대로 된서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이 된서리를 맞은 배추밭의 풀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함께함’ 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알면 그 사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입니다.’

■ 김태중 | 집행위원 한마음공동체 이사